

## 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각 선교지 선교사님들께

할렐루야

현재 저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안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덮어 주시길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본 교회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적 내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몸된 교회,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와 준비로 이번 시기를 헤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섭 이해영

살롬..

이해영 선생님의 2번째 재수술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했지만, 항암치료를 암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고, 3번의 수술 결과 보이는 곳은 암이 제거했지만, 유방과 임파선의 암이 크고 숫자가 많아 암이 있을거라 확실하기에 경구항암제를 6개월 하고 방사선 치료 후 표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제 의사 진단서에는 유방암 3기말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긴 치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항암치료 이후 후유증으로 손발이 심하게 저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같이 자기 전 한기홍 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주린 영혼을 채우심)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아내가 겪는 고통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저희 가족은 매일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지내기에 행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몰도바 정석영

1. 기도의 제단을 더 높이 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2. 언어(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혜가 더해지도록
3.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몰도바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5. 저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H국 조00 윤00

1.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현지 동업자들이 특별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2. 재입국 허용(8월예상)까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지 가족들을 적극 케어할 수 있도록
3. 가족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위해
4. 끊임없는 긴장과 제약 속에서 지치지 않고 열어 주시는 길을 잘 따라가도록
5. 언어와 학식,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파라과이 김정훈 남영자 협력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고 파라과이 사회 경제가 안정이 되도록
2. 방송을 통한 '복음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 되도록.
3. '아메리칸 미션 스쿨' 어린이 및 학부모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여
4. 뿌리멜 아몰 교회 및 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자라가도록.

# 은혜한인교회

2020년 6월 7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 선교소식

## 은혜한인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혁, 도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9)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J국(3), 대만, O국, I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100일 특새 말씀을 위해
2.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4.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 선교사 방문현황

- 주경자
- 강숙진 (키르기스스탄)
- 정소남, 미션 (러시아)
- 김봉년, 김미란 (헬라빈스크)
- 한성우 (이르쿠츠크)
- 최정진 (알타이)
- 그레이스 김 (파나마)
- 백승환 (아르메니아)

## 나눔의 손길

-미국 백원일 선교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염려하던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NAVAJO

RESERVATION 에 CO-

VID19 Virus 가 침투해

서 친구(Rarry Begay)가

죽고 제자인 Cierra의 부

모님이 확진판정을받고

자가 격리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

하기는 중국의 시골과 다를바

없습니다. 우선 마스크와

glove, Sanitizer 를 보냈

고, 많은기도와 후원으로

유타지역 모뉴먼트 벨리

Faith교회, 아리조나 Tuba

City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Hopi족 선교사에게

방역 장비사용법 교육후

Sanitizer glove, Mask,라면과

쌀 김을전달하였습니다.



<도착 그리고 방역 장비사용법 교육후 물품 전달>

## 몰도바 소식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선훈7기)-

(선교지 소식)

현재 몰도바는 8,79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310명이 죽었으며 4,863명이 완

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06.04 기준) 그리고 몰도바 정부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였고, 더불어 정기 국제여행객 항공/열차/버스의 운행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몰도바 국내에서는 -1미터 거리두기- 놀이터, 운동장, 공공 장소 이용 금지. 등의 다양한 활동 제한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도바에 불어닥친 위기가 올바른 대처와 빠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안정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걸음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지난 번에 소식을 전했던 대형면허 도전에 성공하여, 04월 08일에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면허 취득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실업자, 재직자 재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몰도바 귀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 몰도바로 돌아가는 계획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모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4월 23일 출국 예정이던 항공권이 항공사에 의해 취소되었고, 변경이 필요하여 일단 8월 초 출국 일정으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귀임 일정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엠 전문인 선교사로 신청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 오엠과 연계하면서 이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몰도바 상황이 좋지 않아 몰도바 오엠에 바로 합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협력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후 몰도바에서 비자를 받고 거주하며 사역을 이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4월까지의 계획을 준비하고 온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예상되면서 이용이 가능한 숙소를 계속 찾고 있는 상태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손길들로 인해 이번 한 달 동안(6월)은 거주할 곳을 찾아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숙소를 옮겨 다니게 되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도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 베네수엘라 선교 소식

-베네수엘라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4,6절

세계 모든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간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때 주님께서 선한길로 인도하실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이 시작하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처 보내지 못한 선교보고에 요즘 상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글로벌 리더십 스쿨



< 대학생 사역 3기 >

예정했던 대로 지난 3월 2일, 84명의 대학생과 16명의 리더들과 함께 ELG 3기 입학의 시작으로 합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부터는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엘리야 선교사가 함께해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밤 10시가 넘어야 끝나는 저녁집회까지 뻘뻘한 스케줄이지만 특별한 일없이 잘 따라와 줬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대학생들이 이 나라의 소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훈련에 임하는 이들을 볼 때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사역임을 보게됩니다. 그렇게 합숙이 진행되는 2주차의 금요일, 베네수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첫번째 확진자가 발표되고 같은날 모든 학교의 휴교령, 모임, 집회 금지가 선포되더니, 주일 오후에는 모든 도시간의 통행 금지로 터미널, 비행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이 100여명의 대학생과 10여명의 스텝들이 선교센터에 고립 된것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최악의 사태에 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2달 이상 있을 수 있도록 우선 음식을 구할수 있는대로 저장 해놓고 합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자가격리 비상사태의 첫 주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소식들을 들려왔습니다. 뉴스에는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10여명의 소규모 모임이 발각되어 (생일파티) 감옥에 보냈다는 소식에, 생전 지나가지 않던 비행기와 헬리콥터들이 선교센터 근처로 지나가면 학생들이 방이나 강의실에 들어가 몸을 숨기기도 하는 해프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비상상태 선포가 3주가 지나는 시점에, 선교센터 아랫마을에 소독, 방역을 하러 경찰, 시의원이 방문했습니다. 시의원이 선교센터 안에 10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역을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 검문을 하러 올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이 일이 벌어진다면 사역과 신변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도로가 막히고 통행금지가 된 시점에 학생들을 돌려 보내는 문제를 두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듯 적절한 타이밍에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센터를 방문을 한다던 시의원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여러 루트와 방법으로 5일만에 8개의 도시에 문제없이 100여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14시간간 떨어진 아마존부터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마라카이보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쓸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자가격리 상태로 인해 인터넷과 PDF책으로 공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에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식지 않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되어 다시 만날 때 간증과 감사가 넘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밥상 공동체

모임과 집회가 금지된 지금, 어린이 밥상 공동체도 잠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때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귀한분의 헌금으로 1000kg정도의 음식을 사서 10여가지 품목으로 이루어진 음식봉투를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빈민가의 100가정에 나누었습니다. 그중 밥상 공동체에 오는 한 아이의 가정에게도 음식이 전해졌습니다. 2일간 음식을 먹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먹을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로 고백하는 울음과 웃음섞인 아이의 간증을 전해들었습니다. 최대 빈민가인 PETARE 쪽은 현재 2달이 넘도록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가끔 보내는 물차의 물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1명이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을 어떻게 공급해줄지 기도하며 현지 교회와 준비중에 있습니다. "AGUA VIVIA" (생명의 물) 이라는 사역입니다. 사역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기쁨으로 생수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베네수엘라 이야기

늘 베네수엘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넘치지만 요즘 가장 놀라운 뉴스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휘발유 부족 현상입니다. 그동안 지방은 휘발유 수급이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도 카라카스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카라카스도 휘발유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최대 석유보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중질유의 석유를 채굴하기 때문에 희석제를 섞어야 하는데 희석제를 수입할 돈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해진것입니다.

그동안 거의 공짜였던 휘발유가 이제는 암시장에서 1리터의 휘발유가 3달러 최대 4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세상에서 휘발유가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도착한 이란에 몇톤의 금을 주고 긴급으로 가져온 휘발유를 6월에 공급하게 될텐데 어떻게 공급하게 될지, 가격조정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 나눔 속의 선교지

-A국 이00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기로 6월 1일날 한국에 도착해 코비드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2주간 자가격리를 제주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항암을 네팔에서 했기에 머리는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떠있고 밥맛도 없고 밖에도 못나가니 주님과만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학교는 정부의 기약없는 락다운으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해서 마을의 어려운 30 가정에 쌀과 부식을 나누수 있었습니다.



< 빛과 소금학교 학생들 >



< 쌀과 부식을 나누며 >

## 파라과이 선교 소식

-파라과이 김정훈 남영자 협력선교사(선훈9기)-

주님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모든 외부 사역과 활동이 정지되어 긴장되고 위축된 중에도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파라과이 현지 상황

파라과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 당초에 천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늘까지 확진자가 740, 사망자가 11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접 국가인 브라질에서 이제까지 사망자가 13,000명에, 190,000명이 감염되었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6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위에 세워진 다리(명칭: 우정의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양국간의 국경이 폐쇄되었고 브라질에 거주하는 파라과이인들이 파라과이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으나 입국이 거부되어 국경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브라질에서 사는 사람들이 검문을 피하여 파라과이로 입국 할 경우 걸잡을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것을 우려하여 파라과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쪽배 를 타고 강을 건너 파라과이로 오려다가 전복되어 죽었는데 파라과이 쪽에서 사람들이 배를 전복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경 지대인 '시우닷 델 에스테'는 파라과이의 경제 활동을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마비되어 향후 파라과이가 34년만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지난 3월 11일 학교를 비롯하여 예배, 운동 시합등 각종 실내외 모임이 금지되었는데 결국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간의 대면 수업이 금지되어 더 이상 학교에서의 정상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가지고 와삽(Whatsapp) 이라는 프로그램(카톡과 약간 비슷한 기능)을 통하여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비교적 만족해 하고 있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실직을 하거나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 들어 등록금을 내지않아 교사 비용 지불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부터 1단계로 건축 분야가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영자 선교사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핸드폰을 통한 교사의 '가상 수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매주 1회 교사들과의 모임이 있어 모임때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 설교 사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혼의 영원한 죽음일 것입니다. 파라과이 경우는 전체 인구 760만명 가운데 매일 105~110명 정도가 다양한 원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복음화가 약 5~6%라고 볼 때 매일 100여명 정도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뿔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현재 파라과이 전 지역을 커버하는 한 개의 개신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10여개의 비 종교적인 지방 방송국이 있습니다. 시설은 아주 소규모이고 열악하지만 보통 4~5km는 송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